서울 동부신문

(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1면)

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, 보훈·돌봄 현장 점검

보훈회관·노인요양센터 복지 현장 소통 강화

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(위원장 최옥주)는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9일, 송파구 보훈회관과 보훈회관 이전 예정지인 옛 장지동 주민센터,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등 3개소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.

먼저 위원들은 송파구 보훈회관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. 위원들은 보훈가족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힘쓰는 한편, 새롭게 조성될 보훈회관이 지역주민과도 소통하고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운영돼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.



송파구의회

이어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실태를 살피고 센터장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. 위원들은 어르신과 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, 시설 운영의 내실화와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.

최옥주 위원장은 "오늘 기관 방문을 통해 현장의 상황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"며 "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,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들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"고 밝혔다.